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탄소 크레딧 메카니즘 현황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하베스팅

국제금융시장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탄소 크레딧 메카니즘 현황 1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하베스팅 5

국제금융시장 8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12

탄소 크레딧 메카니즘(크레딧 발행) 현황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유지혜 (ester80@kdb.co.kr)

- ◆ 글로벌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이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민간 중심 자발적인 탄소 크레딧 메카니즘(Carbon Crediting Mechanism)도 활발
- ◆ 교토의정서 하의 청정개발체제(CDM) 등 국제 크레딧이 여전히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VCS(Verified Carbon Standard) 등 민간 중심의 독립 크레딧 발행이 확대

□ 주요국 정부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ETS와 탄소세를 중심으로 탄소가격제 도입이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민간 중심의 자발적인 탄소 크레딧 메카니즘도 활발

- 탄소 크레딧 메카니즘은 프로젝트 결과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을 제3자 검증을 거쳐 상쇄(Offset) 크레딧으로 인정받아 거래가능한 단위로 발행하는 제도
 - '19년 기준 전세계 14,500개 이상 크레딧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거래가능한 배출량 감축분인 누적 탄소 크레딧은 40억 이산화탄소환산톤(tCO₂e) 규모 수준
 - 교토의정서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DM) 하의 조림(Forestry) 분야가 과거 5년간 누적 크레딧의 42%를 차지하였으나, '19년 연간 크레딧은 민간 중심의 독립 크레딧 메카니즘에서 2/3 수준 발행

탄소 크레딧 활동 분야

분야	상세내용
농업	· 농장, 가축 관리를 포함하는 농업 관련 활동
CCS/CCU	· 탄소 포집 및 저장·사용 관련 모든 활동
에너지 효율화	· 가정 또는 기업에서 에너지 소비 감소를 통해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 폐열/가스재생, 좀더 효율적인 방식의 화석연료 발전을 포함
조림(Forestry)	· 산림조성, 관리, 산림 황폐화 방지를 통해 배출량을 줄이는 모든 활동
에너지 전환	·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전력/열 사용을 위해 덜 탄소집약적인 연료로 전환(ex. 석탄 → 가스)하는 활동
비산 배출	· 석유생산시설이나 채광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용 메탄 배출 회피 활동
산업용 가스	·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모든 오존층 파괴 물질 저감 활동
제조	· 시멘트, 건설, 금속 등 자재 생산 관련 배출량 감축 활동
기타 토지 사용	· 조림, 농업을 제외한 모든 토지 사용 관리(ex. 습지)
재생에너지	·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모든 재생에너지 활동
운송	· 운송과 모빌리티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
폐기물	· 폐기물 관리 및 처리를 포함한 매립지 가스와 폐수처리 완화 활동

자료 : World Bank Group(20.5),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0", p46-83 내용 중심 재구성

□ 탄소 크레딧 메카니즘은 교토의정서* 하의 국제 크레딧, 민간 중심의 독립 크레딧, 국가·지역 단위 크레딧 메카니즘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97년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으며 '05.2월 공식 발효됨. 의무이행 당사국의 신축성 허용을 위하여 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를 도입한 바 있음

- 국제 크레딧 메카니즘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주관하는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이행제도(JI)로 구분되며 누적 탄소 크레딧의 70%를 차지
 - 청정개발체제(CDM)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Annex I)이 개발도상국(non-Annex I)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공동이행제도(JI)는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 간 협력이라는 점에서 청정개발체제(CDM)와 차이

국제 크레딧 메카니즘(International Mechanism)

구분	주관기관	설립연도	크레딧 이름 ^{주1)}	가격범위 ('19, /tCO ₂ e)	분야 수	주요 분야별 비중('19)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UNFCCC	1997	CERs	US\$0.15~0.24	10	· 산업용 가스(45%), · 재생에너지(32%) · 폐기물(7%)
JI (Joint Implementation Mechanism)	UNFCCC	1997	ERUs	N/A ^{주2)}	9	· 비산배출(53%) · 에너지 효율화(25%) · 산업용 가스(14%)

주1) CDM에서 크레딧은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JI에서는 ERUs(Emissions Reductions Units)로 명명
 주2)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08~'12) 종료 이후 '16년부터 신규 JI 프로젝트나 ERUs 발행이 없어 정확한 가격 산정 불가
 자료 : World Bank Group('20.5),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0", p.46-83 내용 중심 재구성

- 민간 중심의 독립 크레딧 메카니즘은 주요 4개의 자발적 탄소상쇄 프로그램(ACR, Climate Action Reserve, Gold Standard, VCS)이 전체의 80%를 차지
 - ACR(American Carbon Registry)은 세계 최초의 민간 온실가스 등록기관으로 자발적 탄소상쇄 프로젝트의 등록 및 검증을 감독하고 상쇄 크레딧을 발행하는 역할 수행
 - '96년 환경보호기금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Winrock International에 인수
 - 탄소 포집 및 저장·사용(CCS/CCU), 조림 분야 비중이 각각 43%, 20% 수준이며, 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의 사무국 역할도 수행
 - Climate Action Reserve는 '01년 캘리포니아주가 지역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California Climate Action Registry로 시작
 - Gold Standard는 두 번째로 큰 독립 크레딧 메카니즘으로 등록된 크레딧은 재생에너지(42%), 에너지 전환(26%) 분야 비중이 높은 편
 - '03년 세계자연기금과 국제 NGO들이 자발적 탄소상쇄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고용, 건강증진 등 사회적 영향에 대한 추가적 인증 목적으로 설립

- VCS(Verified Carbon Standard)는 가장 큰 독립 크레딧 메카니즘으로 '19년 연간 기준 VCS의 발행량(118.9ktCO₂e)이 청정개발체제(CDM)의 발행량(53.7ktCO₂e)을 초과*
 - * '06년 이후 처음으로 다른 크레딧 메카니즘이 청정개발체제(CDM)의 연간 발행량을 초과
- VCS는 '05년 탄소시장 주요기관(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세계지속가능발전협의회(WBCSD), 세계경제포럼(WEF), The Climate Group*)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 인증 및 지원 목적으로 설립
 - * '03년 설립된 국제 비영리 환경단체로 '14년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구하는 'RE100' 캠페인을 주도

주요 독립 크레딧 메카니즘(Independent Crediting Mech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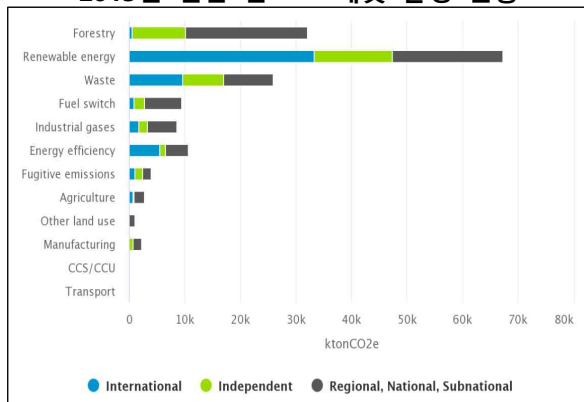
구분	주관기관	설립 연도	크레딧 이름	가격범위 (1tCO ₂ e)	분야 수	주요 분야별 비중('19)
ACR (American Carbon Registry)	Winrock International	1996	VERs	U\$3	10	· CCS/CCU(43%) · 조림(20%) · 제조(15%)
Climate Action Reserve	Climate Action Reserve	2001	CRTs	U\$3	5	· 폐기물(46%) · 산업용가스(27%) · 조림(25%)
Gold Standard	Gold Standard Secretariat	2003	VERs	U\$4	7	· 재생에너지(42%) · 에너지전환(26%)
VCS (Verified Carbon Standard)	Verra	2005	VCUs	U\$3	10	· 재생에너지(45%) · 조림(42%)

자료 : World Bank Group('20.5),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0", p46-83 내용 중심 재구성

□ 최근에는 VCS 등 민간 중심의 독립 크레딧 메카니즘을 통해 조림, 재생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전환 분야 등에서 발행한 크레딧이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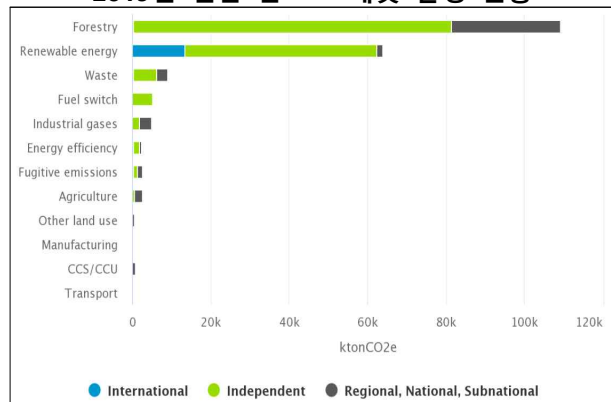
-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15년에는 국제 크레딧과 지역·국가단위 크레딧의 발행이 중심이었으나 '19년 현재 독립 크레딧 메카니즘 발행이 중심
 - '19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민간 탄소 크레딧 발행규모는 '15년 대비 3.5배 수준
 - 일부 국가는 탄소세나 ETS의 규제 준수 의무 충족을 위해 탄소 크레딧을 활용

2015년 연간 탄소 크레딧 발행 현황



자료 :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2019년 연간 탄소 크레딧 발행 현황



자료 :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 참고 : 국가 · 지역 단위 탄소 크레딧 메카니즘(17개) 현황 >

구분	권역	설립 연도	크레딧 이름	가격범위 ('19, /tCO ₂ e)	분야 수	주요 분야별 비중('19)
Alberta Emission Offset System	앨버타주 (캐나다)	2007	Alberta Emissions offset	U\$14~19	9	· 재생에너지(31%) · 농업(29%) · CCS/CCU(9%)
Australia ERF	호주	2012	ACCU	U\$10~11	7	· 조림(56%) · 폐기물(31%)
Beijing Forestry Offset Mechanism	베이징시	2014	BFCERs	U\$2	1	· 조림(100%)
British Columbia Offset Program	브리타시 콜롬비아주 (캐나다)	2016	British Columbia Offset Units	CAN\$11.41	4	· 조림(80%) · 에너지전환(17%)
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	미국	2013	ARBOCs	U\$14.13	4	· 조림(80%) · 산업용 가스(12%)
China GHG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Program	중국	2014	CCERs	U\$1~2	5	· 재생에너지(59%) · 폐기물(18%) · 에너지 전환(14%)
Fujian Forestry Offset Crediting Mechanism	푸젠성 (중국)	2017	FFCERs	U\$1~30	1	· 조림(100%)
Guangdong Pu Hui Offset Crediting Mechanism	광둥성 (중국)	2017	PHCERs	U\$2	2	· 재생에너지(96%) · 조림(4%)
J-Credit Scheme	일본	2013	J-credits	1,851엔, 1,473엔	5	· 재생에너지(66%) · 에너지효율화(33%)
Joint Crediting Mechanism(JCM)	몽고 외 17개국	2012	JCM credits	N/A	3	· 재생에너지(75%) · 에너지효율화(24%)
Québec Offset Crediting Mechanism	캐나다	2013	Québec Offset Credits	U\$12.79	2	· 산업용 가스(70%) · 폐기물(30%)
Regional Green House Gas Initiatives'(RGGI) CO ₂ Offset Mechanism	코네티컷, 델라웨어, 뉴욕주 등 6개주	2005	RGGI CO ₂ offset allowances	U\$5	1	· 폐기물(100%)
Saitama Target Setting Emissions Trading System	사이타마 현(일본)	2011	Offset credits	N/A	1	· 재생에너지(100%)
Saitama forest absorption Certification system	사이타마 현(일본)	2010	Forest Absorption Credits	N/A	1	· 조림(100%)
Republic of Korea Offset Credit Mechanism	한국	2015	KOCs	U\$25~33	6	· 재생에너지(60%) · 제조(18%) · 폐기물(13%)
Switzerland CO ₂ Attestations Crediting Mechanism	스위스	2012	Swiss CO ₂ attestations	U\$83~85	7	· 에너지 전환(46%) · 조림(41%)
Tokyo Cap-and Trade Program(Tokyo CaT)	도쿄	2010	N/A	U\$46~59	2	· 에너지효율화(n.a) · 재생에너지(n.a)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하베스팅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김 신 희 (shinhee@kdb.co.kr)

- ◆ 에너지 하베스팅이란 일상생활 속 버려지거나 미활용되는 에너지를 모아 전력으로 재활용하는 기술로서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기술
- ◆ 에너지 하베스팅 시장은 탄소저감정책 기조 및 사물인터넷(IoT), ESS 등의 확대로 관련 기술의 성장이 가속화될 예정

□ 에너지 하베스팅이란 버려지거나 미활용되는 에너지를 모아 전력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통칭하며, 버려지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

- 에너지 하베스팅은 1954년 미국 벨 연구소가 태양광을 에너지로 바꾸는 태양 전지 연구를 진행하면서 소개된 개념
 - 당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은 발전기를 통한 방식만 있었기 때문에 태양열 등의 자연 에너지들은 버려지는 에너지로 인식되어,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 전기를 생산한다는 개념으로 '하베스트(harvest)'라는 단어 사용
 - 현재는 의미가 확장되어 자연 에너지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낭비되는 모든 에너지원을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에너지 하베스팅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친환경 에너지 방안 중 하나로서 다양한 에너지를 적용할 수 있음
 - 에너지 하베스팅은 에너지의 발생, 에너지 저장, 에너지 소비의 단계로 이루어짐
 - 인간의 근육, 혈류, 움직임 등을 비롯하여 전자기파, 중력, 마찰 전기, 자동차 폐열 등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에너지 변환에 사용되는 기술은 열전 변환 기술*과 압전 변환 기술**이 대표적
- *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
** 압전체(壓電體)에 기계적 변형이 발생하면 소재 내부에 전기장 발생으로 전압을 생성하는 기술

에너지 하베스팅 주요 에너지원 특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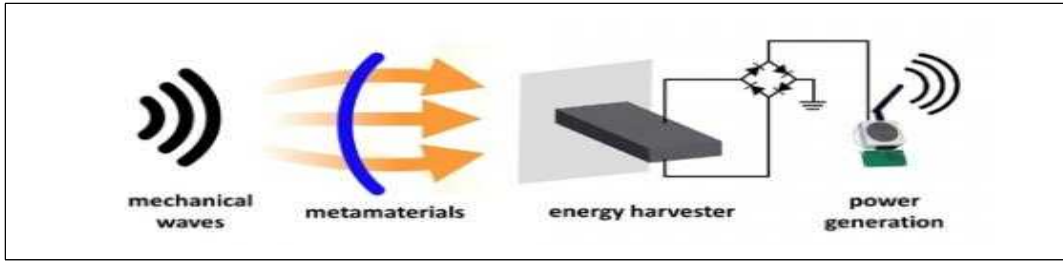
에너지원	기술	개요	전력 밀도 (mW/cm ³)	효율(%)
빛, 태양광	광전 변환	금속 등이 고에너지의 태양광을 흡수하면 전자를 내보내는 현상을 이용	500~5,000	5~40
진동, 움직임	압전 변환	기계적으로 누르면 양전하, 음전하가 나뉘는 유전분극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압력을 주면 표면의 전하 밀도가 변하면서 전기가 흐름	0.001~90	25~60
전파	전자기파 변환	전자기파를 수집해 전기를 생산	0.1~50	30~40
열(온도차)	열전 변환	온도 차이를 전위 차이로 변환하는 제백 효과(Seebeck Effect)에 기반하며, 온도차가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발생	50~500	0.1~10

자료 : TDB(2020), "에너지 하베스팅"

□ 에너지 하베스팅 관련 시장은 탄소저감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에너지 획득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소자 등의 개발이 필요

- 과거 에너지 하베스팅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는 전력과 전압이 낮아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최근 국내에서 메타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향후 개선될 유인 존재
 - 이미 상용화가 진행된 태양전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술들의 산업화 및 상용화는 미미한 실정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연구팀은 메타물질*인 음향양자결정(phononic crystal)** 구조 개발로 기존보다 22배 이상 증폭된 전기를 생산하는 메타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을 개발
 - * 메타물질이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도록 인공적으로 설계된 물질(빛의 파장보다 작은 원자의 집합체)
 - ** 음향양자결정(phononic crystal)은 단위 격자를 주기적으로 배열한 인공적인 구조물로서, 여러 곳에서 들어온 음파 에너지를 한 곳으로 최대한 모아 더 나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역할을 함
 - 하베스팅 기술의 디바이스 적용을 위해서는 소자의 최적화와 회로의 고성능화를 위한 고집적화 기술이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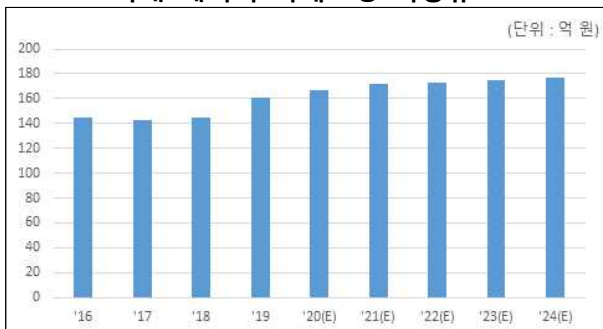
메타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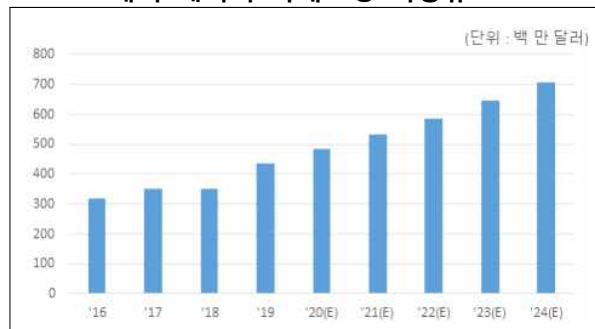
자료 : 한국표준과학연구원(2019)

- 세계 에너지 하베스팅 시장은 규모는 '19년 437.8백만 달러 규모이며, 이후 연평균 10.1%로 성장하여 '24년에는 708.2백만 달러에 이를 전망
 - 기술별로 효율과 출력값에서 큰 차이를 보여 응용분야가 각각 다르나, 최근에는 사물인터넷(IoT), ESS등의 발달로 와트(W)급 미활용 에너지 수집이 가능해져 활용 분야가 증가되는 추세
 - 마찰 전기 등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태양광 등 날씨의 영향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 또한 증가가 예상됨
 - * 태양전지 위에 TENG 발전기라는 마찰전기를 활용한 나노 발전기를 결합하는 기술로, 비가 오는 날 발전이 어려운 태양전지에 물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마찰전기를 활용하여 발전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국내·외 탄소 저감정책 확대에 따라 에너지 하베스팅 관련 기술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전망

국내 에너지 하베스팅 시장규모



해외 에너지 하베스팅 시장규모



자료 : MarketsandMarkets (2020), "Energy Harvesting System Market-Forecast to 2025"

국제금융시장 12월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혜진 (ghjkim@kdb.co.kr)
 정대형 (wellbaby@kdb.co.kr)

- ◆ **(환율)** 달러화는 완화적 통화정책, 추가부양책 타결 등으로 약세를 보였으며, 원화는 전월 대비 추가 강세 시현
- ◆ **(금리, 추가)** 미 국채 등 장기금리는 전월 말 대비 강보합세를 보였으며, 선진국 증시는 고효능 백신 보급, 미 추가부양책 타결 기대 등으로 상승세 시현

□ **(환율) 달러화 가치는 완화적 통화정책, 추가부양책 타결, 유로화 강세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낮아진 1,080~1,110원 구간에서 등락**

- 달러 인덱스*는 완화적 통화정책 및 추가부양책에 대한 기대, 브렉시트 관련 협상 진전에 따른 유로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90pt 아래로 하락
 - * 메이저 6개 통화(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대비 달러화 가치
 - 월초부터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및 추가부양책 연내 타결 기대가 조성되어 3일 달러 인덱스가 '18.4월 이후 처음으로 90pt대 기록
 - 16일 FOMC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된 가운데 추가부양책에 대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기대가 확산되며 17일 달러 인덱스가 90pt 아래로 하락
 - 21일 추가부양책 통과, 24일 영-EU의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 타결 등 달러화 약세요인으로 90pt선 부근에서 등락하다 30일 이후 재차 90pt선 하회
- 달러화 약세로 인한 엔화의 상대적 강세로 엔/달러 환율은 하락
- 유로화는 기대했던 수준의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 EU 경제회복기금에 대한 폴란드·헝가리의 거부권 철회**, 브렉시트 미래관계 합의 등으로 강세 지속
 - * ECB는 10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자산매입 규모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 그러나 이에 대한 기대가 전월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강세 지속
 - ** 국가별 예산 배분과 경제회복기금 지원을 회원국의 법치주의 존중 여부와 연계하려는 EU의 계획에 대하여 폴란드와 헝가리가 반발하며 EU 장기예산안과 EU 회복기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10일 양국이 독일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거부권을 철회함에 따라 EU 재정정책 집행 차질 발생에 대한 우려 해소

주요 선진국 통화 환율 추이

	'18년말	'19년말	'20.11월말	'20.12월말	전월대비
달러 인덱스	96.140	96.479	92.007	89.927	△2.26%
엔/달러	109.61	108.66	104.41	103.26	△1.10%
달러/유로	1.1456	1.1219	1.1929	1.2217	+2.41%

자료 : 연합인포맥스

- 원/달러 환율은 월초 1,100원 선 아래로 하락 후 외국인 주식투자 및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080~1,100원 구간에서 등락하는 N자형 흐름 시현
 - 월초 환율이 1,080원대까지 하락하였으나, 외국인 주식 순매도*,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상승 전환하여 23일 1,107.9원 기록
 - * 외국인은 국내주식을 11월에는 5.0조원 가량 순매수하였으나, 12월에는 1.2조원 순매도
 - 월말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 및 부양책 서명 소식(27일) 등의 영향으로 하락 반전하여 30일 1,180원대 재진입

원화 환율 추이

	'18년말	'19년말	'20.11월말	'20.12월말	전월대비
원/달러	1,115.7	1,156.4	1,106.5	1,086.3	△1.83%
원/엔	1,017.9	1,064.2	1,059.6	1,052.0	△0.72%

자료 : 연합인포맥스

□ (금리) 美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강보합세

- 월초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따른 빠른 경제정상화 기대로 상승 후, 전월말 대비 높은 수준에서 美 경제대책 합의 난항, 코로나19 확산 지속 등으로 등락 거듭
 - 백신 보급 외에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미래관계 협상 타결("No-Deal 브렉시트"* 우려 해소) 등도 전반적인 금리 상승에 기여
 - * 브렉시트 이후의 양자 간 통상관계에 있어 아무런 특약도 맺지 못하여 글로벌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지는 국면

□ (주가) 선진국 증시는 백신 상용화 기대 등으로 전월의 상승세 지속

- 미국·유럽·일본 증시는 백신 보급 기대, 브렉시트 협상 타결, 美 추가부양책 실시로 일제히 호조세
 -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섯다운* 시한이 임박한 27일 밤 추가부양책이 포함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서명한 이후 미국 증시 3대 지수 신고가 경신**
 - * 예산 공백으로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
 - ** (28일) 나스닥 : 12,899.42 / (31일) 다우지수 : 30,606.48 | S&P500 : 3,756.07

주요국 국채 금리 및 주가 추이

		'18년말	'19년말	'20.11월말	'20.12월말	전월대비
금리 (%)	미국채 10y	2.6842	1.9175	0.8389	0.9132	+7.43bp
	독일채 10y	0.2420	-0.1850	-0.5710	-0.5690	+0.20bp
	일본채 10y	0.0030	-0.0110	0.0320	0.0210	△1.10bp
주가 (pt)	다우존스	23,327.46	28,538.44	29,638.64	30,606.48	+3.27%
	유로 Stoxx 50	3,001.42	3,745.15	3,492.54	3,552.64	+1.72%
	Nikkei	20,014.77	23,656.62	26,433.62	27,444.17	+3.82%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시장 1월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혜진 (ghjkim@kdb.co.kr)
 정대형 (wellbaby@kdb.co.kr)

- ◆ (환율) 달러화 약세 및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가 조절될 전망
- ◆ (금리, 주가)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증가 및 안전자산 선호 감소가 나타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및 변이 발생 등 하락요인도 부분적으로 작용 가능

□ (환율) 달러화 약세 및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우세하나, 그 속도는 조절될 전망

○ 달러화 : 약세 속도가 조절될 전망

-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달러화 유동성 증가, 달러화 선물에 대한 투기적 순매도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달러화 약세 압력이 우세
- 연준은 12월 FOMC에서 국채 매입 기간에 대한 가이드스*를 구체화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기조를 유지
- * 기존 "수개월간"에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을 이룰 때까지"로 수정
- 그러나, 정책 기대효과의 선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약세 속도 조절 예상
- '20년 달러 인덱스는 전년말 대비 6.79%, 최고점('20.3.19일) 대비 12.43% 하락

○ 엔화 : 달러화 약세에 따른 추가 강세 가능

- 최근 엔/달러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심리보다 달러화 가치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달러화 약세 시 엔화의 상대적인 강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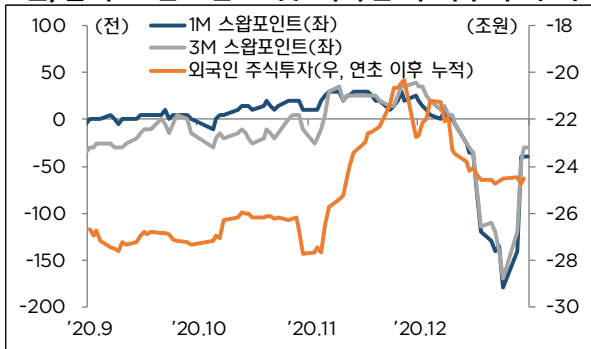
○ 유로화 : 강세 속도가 조절될 전망

- 12월 유로존 경기전망 악화*, 유로화 강세에 대한 ECB의 개입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과 관련된 경기개선 기대감으로 달러/유로 환율이 상승
- * ECB는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21년 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0%에서 3.9%로 1.1%p 하향 조정
- 그러나 유럽 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을 감안할 때 경기개선 기대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로화 강세 속도가 조절될 전망
- ECB의 자산매입 규모 확대 등도 유로화 강세를 제한하는 요인
- '20년 달러/유로 환율은 전년말 대비 8.9%, 최저점('20.3.19일) 대비 14.3% 상승

○ 원/달러 환율 : 하락 속도가 조절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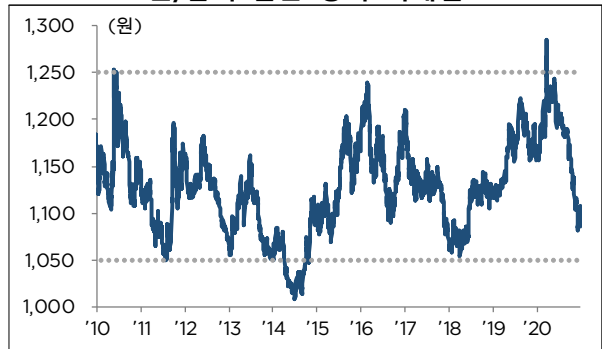
- 수출 개선, 외국인 주식매도 진정 등 환율 하락에 우호적인 환경 예상
- '20.12월 수출은 514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
- 12월중 원/달러 환율 상승을 견인하였던 외국인 주식매도가 12.24일 진정되며 12월 마이너스 영역으로 하락하였던 단기 원/달러 스왑포인트*도 반등
- * 스왑포인트의 마이너스(-) 진입은 외환시장 내 달러 수요 증가를 의미(원/달러 환율 상승요인)
- 다만, 국내 코로나19 확산 진정 지연, 위안화 추가 강세의 제한, 환율의 추가 하락에 대한 부담 등으로 하락 속도가 제한될 전망
- '10년 이후 원/달러 환율은 주로 1,050~1,250원 범위에서 등락

원/달러 스왑포인트 및 외국인 주식투자 추이



자료 : 연합인포맥스

원/달러 환율 장기 시계열



자료 : 연합인포맥스

□ (금리, 주가) 불확실성 경감에 따라 금리 및 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 예상

○ 금리 : 안전자산 선호 감소세 속 하락요인 작용 가능

- '21.1.5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 이후 미국 새 정부 출범 관련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미 국채 금리 상승이 예상되나, 코로나19 확산 지속 등 하락요인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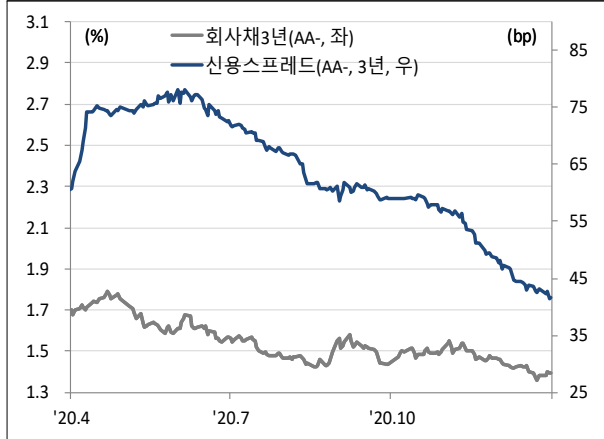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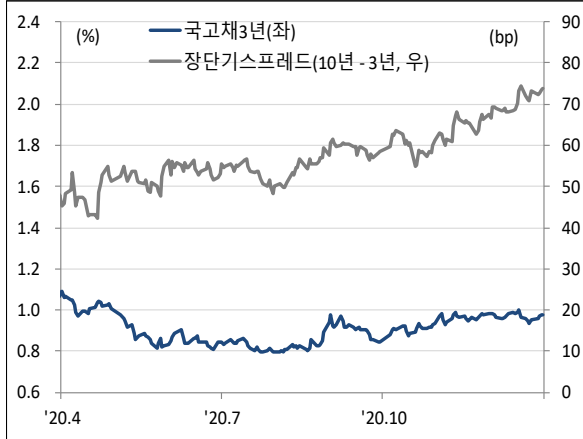
○ 주가 : 위험자산 선호 지속 전망

- 미국 경기부양책 불확실성 해소, 브렉시트 합의 등 호재로 인해 전월의 주식 선호 경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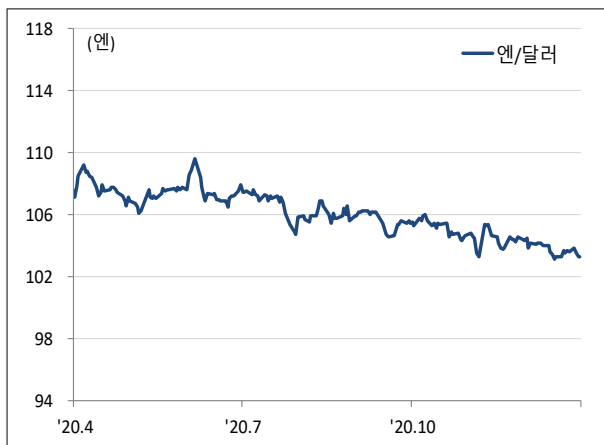
(담당자 : 환율 - 김혜진, 금리/주가 - 정대형)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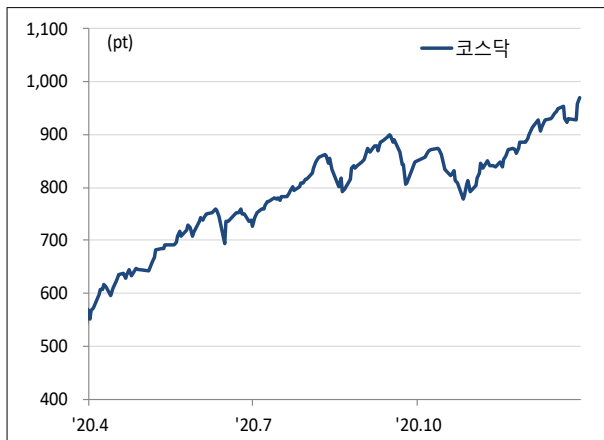
금리 국고채3년 0.976% (2.6bp ↑), 신용스프레드 41.6bp (1.6bp ↓)



환율 원/달러 1,086.3원 (16.7원 ↓), 엔/달러 103.26엔 (0.41엔 ↓)



주가 코스피 2,873.47pt (2.37% ↑), 코스닥지수 968.42pt (4.28%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910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18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